엇갈림

(요6:22~40)

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
24.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엇갈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2012년 부산 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된 한국영화가 있습니다.
'내가 고백을 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울과 강릉 두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 영화제작자가 있는데, 방금 제작해서 발표된 영화가 관객과 평단의 반응이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주말이 되자 습관적으로 강릉을 찾아갑니다.
이 영화제작자가 그냥 주말마다 강릉을 찾아갑니다.
반면에, 강릉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가정방문 간호사 일을 하는 여자인데, 강릉의 삶이 판에 박힌 삶이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에요.
뮤지컬이나 문화영화, 연극을 감상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 간호사와 강릉에 주말마다 내려와서 서울에서의 그 복잡하고 머리가 깨지고 긴장되는 삶을 벗어나서 탁 트인 바다를 보며 여러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주말을 즐기는 이 두 남녀의 엇갈림이 화면에 처리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남자가 주말마다 강릉에 내려가면 카페에 들러서 차를 마시는데, 그 카페의 주인과 이 간호사는 강릉사람들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이 카페주인을 매개로 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주말마다 각자의 집이 비게 되니까 주말에는 서로 바꿔서 집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손대지 않는다, 주말을 지내고 떠날 때는 청소를 깨끗이 해놓는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등의 몇 가지 조약들을 써서 서로 엇갈려서 각 집을 사용하고 있는 이 두 남녀, 이대로라면 영원히 못 만나지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엇갈림이 깨어지면서 여러 사건들이 미로로 얽히게 되고 그 미로를 따라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엇갈림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엇갈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혼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집으로 갔던 수많은 군중들이 도저히 어제의 그 감동적인 기적의 현장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분명히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장소에 와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갔던 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만나고 있지만 너희들과 나는 지금도 엇갈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향해 질주하고 있으므로 영원히 있을 양식을 주려고 하는 나와는 영원히 엇갈리게 된다.’

이 엇갈림을 깨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엇갈림을 깨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왜 이렇게 요한이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내면적인 상황이 예수님과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서, 예수님은 이미 바다 위를 걸어서 떠나신 뒤였는데, 떠나신 뒤에 오병이어의 현장에 찾아와서 서로 엇갈리게 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면의 엇갈림을.
이 내면의 엇갈림의 정체가 뭡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내면의 상황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다보면 이 대화의 마지막 부분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하더라’ 다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엇갈리게 되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마음과 영원히 있을 양식을 구하는 마음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밥이나 국, 피자, 자장면,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이 언제나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빈 배를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공심(空心)입니다, 비어있는 상태가 마음의 본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썩을 양식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에 채워서 마음의 배가 부르기를 원하고, 마음이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은 OK, 좋다! 나도 너희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있을 양식을 줘서 마음에 만족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썩을 양식을 통해서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육체의 배가 부르므로 마음에 만족을 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추운 겨울 국밥집에 들어가 뜨끈한 국밥을 한 그릇 먹고 나면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육체의 배가 불러서 마음이 만족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지 마음에 만족을 구하는데, 썩을 양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 무엇일까요?
썩을 양식은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이기는 하되, 시간이라는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속성이 들어있는 것들이 썩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에 만족을 계속 줄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만나 결혼하기를 원해 천신만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도저히 깜이 안 된다고 여자 집에서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결혼을 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과 결혼해서 마음이 배부른 것은 여인이 양식이 된 것인데, 내 마음의 배부름과 관계해서 이것은 시간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썩을 양식입니다.
계속 그 여인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만족함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만족함을 가지고 뭐 ~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배불러 만족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보아도 마음이 이상하게 공복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시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모든 배부름을 위한 재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허깨비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변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내 마음이 만족한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가 기적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기적을 좋아하는 것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적으로 배 부르려는 것과 하나님으로 배 부르려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도록 있을 양식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시간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시간 바깥에 있는 세상, 시간 바깥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서 지금 내 마음에 주어지는 양식이 영원히 있을 양식이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만족을 원하는 겁니다, 배부름을 원하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가 배부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들로 배 부르려 하는데, 그것을 찾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려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이라는 속성이 들어있지 않는 것들로 우리들의 배를 불리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 엇갈림이 깨져야 됩니다.
이 엇갈림이 깨지기 위해서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또, 썩지 않을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엇갈리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 맥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선시한다는 얘깁니다.
그동안 동일시라고 했지요? 이 동일시작업은 우선시하면서 동일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시가 뭡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 뱀을 매달아서 높이 쳐듭니다.
이때 불뱀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져가는 사람들이 그 구리뱀 장대를 바라보면 삽니다.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왜 구리뱀 장대를 보지 않을까?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석통을 앓아보았습니다.
내 몸의 신장 부분의 통증이 과도하게 생길 때, 온 신경이 통증이 일어나는 부분에 집중됩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을 마음의 시선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에요, 불뱀에 물려서 독이 시시각각 온몸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1초 2초, 3초가 지나가면서 불뱀의 독이 퍼져나갈 때 증상이 달라집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허공을 향하여 들려있는 구리뱀 장대를 본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지금 사업이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불뱀이 되어 내 마음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사업에 대한 생각이 온 마음에 다 펴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의 독이 온 마음을 지배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라는 생각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거라는 얘기에요.
근데 사업의 독이 퍼져나가고 사업에 대한 생각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고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이것은 엇갈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선시하는 거예요.
우선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엇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속에는 엇갈림 말고는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 걱정이 내 마음에 불뱀의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걱정에 사로잡힌 채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엇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보다 예수님의 문제가 더 크고 예수님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본문의 대화내용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걸 우선시 하고 보라는 얘깁니다.
이게 왜 우선시되어야 될까요?
우선시라는 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거나 1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우선시가 되어야 엇갈림이 깨어져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을 양식, 시간으로 제한되어지고 시간적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배불리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엇갈려나갑니다.

이 엇갈림을 깨는 거예요.
깨려면 우선시해야 되는데, 왜 우선시가 합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냐?
나와 관계돼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나 때문에 온몸에 살가죽이 다 벗겨지도록 채찍에 맞게 하시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가시가 계속 머릿속으로 파고 들게 하시고, 손과 발에 못을 쳐서 나무에 매달으시고, 창으로 배를 찔려서 피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외아들을 죽게 하신 이 사건보다 이 땅에서 나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사건 중, 어느 사건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내 자식이 문제가 되는 것, 내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나 때문에 죽이신 사건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설령 이 몸이 죽게 되더라도 그것이 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나 때문에 죽이신 사건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육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창조주의 외아들보다도?
이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 일어나고 있는 사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나와 연

관된 것 중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합쳐도 값을 치룰 수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인 사건은 나 자신에게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사건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위험이 있어도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선시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썩을 양식, 시간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 죄적 근성이 깨어져나가면서 예수님과의 엇갈림이 깨어집니다.
예수님과 정중앙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불뱀의 독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기도하려고 해도 잡념만 생기고 염려가 되던 그것들만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십자가를 우선시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선시해서 보여 져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십자가가 보여 지고, 십자가가 내 마음에 명확하게 앞에 드러나야 그때부터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로원복음방송의 '오늘의 번제'는 바로 십자가를 우선시하는 것을 돕는 일이지요.
이 우선시함을 통하여 엇갈림을 깨고 예수님을 만날 때, 시간과 관계없이 배부름이 일어나면서 시간과 관계되는 모든 사건들도 불뱀처럼 나를 물었던 사업도, 자식문제도, 건강문제도,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선시해야 됩니다.
다~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뒤로 제쳐놓고 예수님을 보는 우선시를 통하여 엇갈림을 깨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있을 양식으로 배부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될 그 어떤 사건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우선시하며, 엇갈림이 깨어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양식으로 배부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그런한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